

눅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허무입니다. 허송세월 보내면서 물질도 허비, 시간도 낭비하고 또 자기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탕자의 상태는 창 1:2에 나와 있는 땅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땅처럼 탕자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시 94:11). 생각이 허무한즉 행사도 공허합니다 (사 41:29).

허무한 것에 눈을 돌리다보면 이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이 캄캄함입니다. 시 82:5에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지무각이란 말을 풀어보면 없을 ‘무’ 알 ‘지’ 없을 ‘무’ 깨달을 ‘각’ 그러니까 무지무각이란 아는 것도 없고 깨달는 것도 없는 것 바로 이 상태가 무지무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어둡고 캄캄합니까?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될 수도 있거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 유대인의 반응은 거리낌이었습니다. 고전 1:22 볼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전하니” 했습니다.

기적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모내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우주 기술로 만든 신발이니 옷이니 해도 몇년 쓰다보면 다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광야에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바다를 건넜어도 또 아무리 걸어다녔어도 발이 부러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느 9:21).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 기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곳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습니다. 분명 기적을 원하는 불같은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 16:4에서 그런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즉 기적을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막 9:19).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은 기적을 보는데 있었습니다. “너희는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 4:48).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 14:31, 16:8)?

새로운 것을 알려는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아는 것에 자기의 삶을 건 사람입니다. 행 17:21 보니까 헬라 사람은 “가장 새로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에 대한 헬라인의 반응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헬라인에게 있어서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일이며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이란 어리석고 둔한 것, 센스가 모자른 것, 판단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이 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죄를 완전하게 없애 주는 십자가에는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매끄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며, 그 길은 좁고 험든 길입니다.

비록 보양직도 없고 먹음직도 없고 꼭 가져야 할만큼 탐스럽게 생긴 것도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과 몸을 들뜨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우리를 흥분시킨다해도 거기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진실과 전심과 성심으로 하지 않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 17:20). 전도의 문, 감사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

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그 분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다른 약속하기 전에!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것입니  
다!